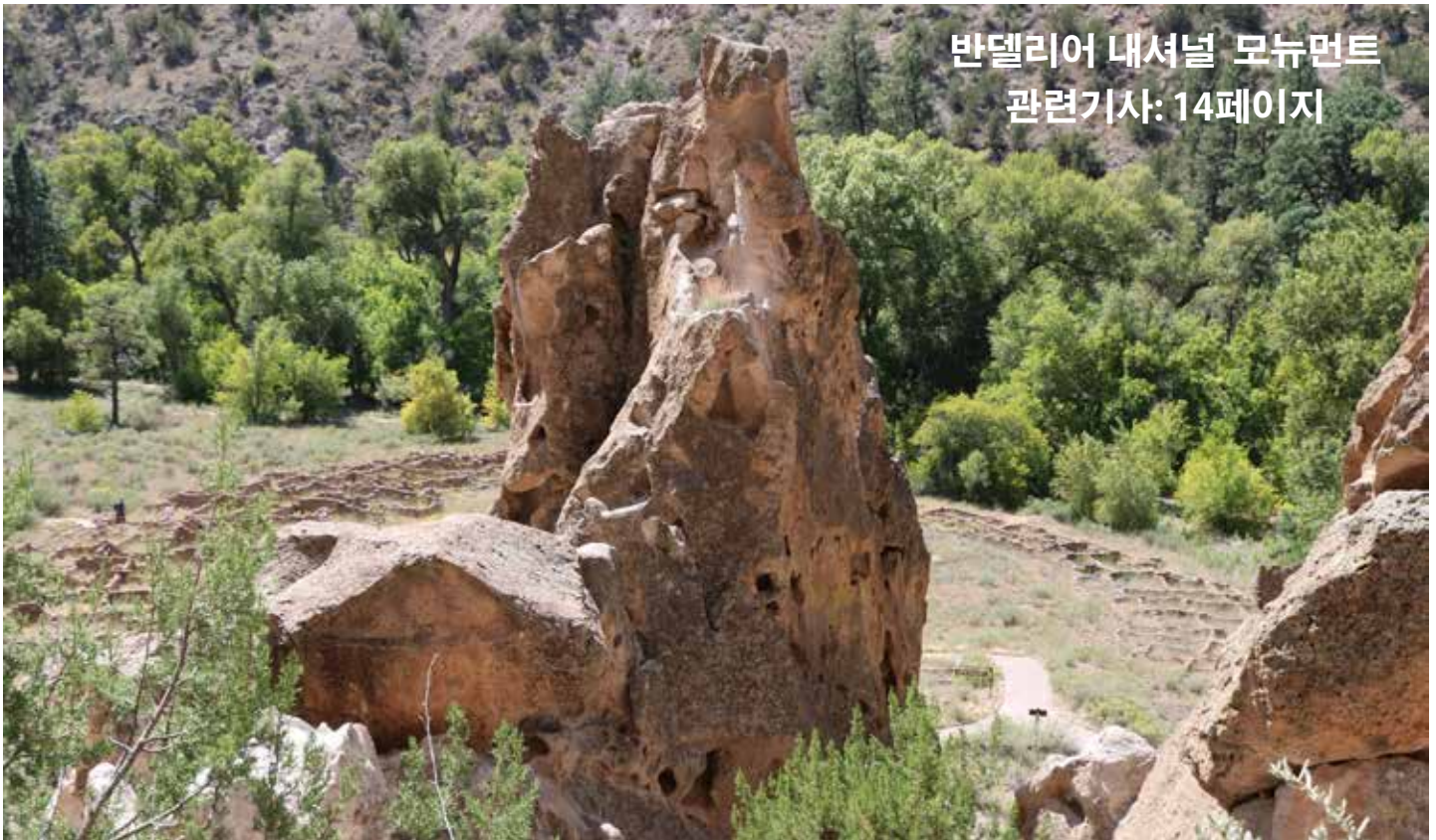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5-6월호
2019년



반델리어 내셔널 모뉴먼트
관련기사: 14페이지

한인회 코너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대식

뉴멕시코한인회 수석부회장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저는 제18대 한인회 수석부회장 직을 맡은 정대식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곳 앨버커키에서 지낸 지 어언 40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청춘을 다 보낸 제2의 고향 앨버커키에서의 제 삶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명희 회장님과의 인연으로 첫발을 내디딘 한인회의 활동이 그것입니다. 짧지만 지난 몇달간의 한인회 활동은 타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어려움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밖에서만 바라본 전직 한인회장단의 활동들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2페이지로 계속>

5/6월호 주요내용

- 한인회 코너 | 부회장 인사말 |정대식 : 1
- 한인회 소식 | 어버이회소식/골프대회 : 2
- 한국학교 | 한국학교소식 |박영신 : 3
- 지역사회소식 | 차세대 공고문/ 에어쇼/파우와우 : 4-5
- 지역사회소식 | 산타페교회소식/최대 항공기: 6
- 지역사회소식 | 이정길교수 수필집/영사업무/고교 졸업률: 7
- 지난소식 | 블랙홀 사진 / 인텔 시설 확장 : 8
- 칼럼 | 2019 부활절예배 | 김기천 : 9
- 수필 | 보은하는 새 | 이정길 : 10
- 여행 | 타박타박 미국여행 :아리조나(2) | VOA Korea: 11
- 건강상식 | 치과이야기(3) | 윤자정 :12
- 아동교육 |음악 교육에 관하여 | 서유경 :13
- 뉴멕시코여행안내 | 반델리어 모뉴먼트 | 편집부: 14
- 영어상식시리즈 | 영어이야기(2) | 이상목 : 16
- 수필 | 새파란 하늘과 멋진 노을...|김준호 :17
- 수필 | 생육과 번성 | 이명길 :18

한인회 소식

수석 부회장 인사말 (1페이지에서 계속)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아이들에게는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한국인의 긍지를 일깨워주고 어르신들께는 좀 더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 관심은 소수의 인원이 채워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그동안의 짧은 활동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전직 한인회 회장단들과 임원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회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한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인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어버이회 소식

1. 부고

정복순 어머니님이 지난 4월 15일 소천하셨습니다(향년 83세) 가족, 지인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Garcia Funeral Home에서 이명길 목사님 집회하에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어버이회 나들이 소식

어버이 여러분을 모시고 헤이메즈 산에 있는 펜톤 호수 공원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점심 식사(LA 갈비, 콩치)제공함
일시: 5월 7일(화)

장소: Fenton Lake

출발: 10시 한인회(차편 제공, 5시까지 돌아올 예정)

3. 미술전시회

소피아 빈하우어(한인회 전 이사장) 시아버지 되시는 Herb Beenhouwer 씨의 미술 전시회가 산타페에서 열렸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리며 장소는



철도역 근처에 있는 El Museo Cultural de Santa Fe (주소: 555 Camino de la Familia Santa Fe, NM 87501)입니다. 산타페의 "Living Treasure"이며 첼로 연주자로 알려진 허브 빈하우어씨는 90세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파스텔, 잉크, 연필을 사용한 미술 작품들을 친구화가인 Frederico Vigil씨와 함께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5월 11일 어버이회 회원들이 기차를 타고 산타페로 가서

2019 한인회장배 골프대회

한인회 기금마련을 위한 한인회장배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5월 20일 샌디아 골프 오후 1시부터

참가비: \$100

참가신청: 정대식 505-259-5858

대회방식: 개인전 + 뉴페리오

시상식과 저녁식사는 한인회에서 준비합니다. ■

전시회를 구경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임넨시 부회장님이나 김길자 어버이회 회장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4. 한국소개 전시회

초등학교 선생님(Younhee Burningham)이 한국을 알리는 전시회를 5월 4일 11시~1시까지 가질 예정입니다 한복을 입은 분들을 초청하고자 해서 어버이회 회원들께서 참석 예정입니다

장소: Corrales International School

5500 Wiltshire Ave NM 87113

연락처 전화 : 505-344-9733 ■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박영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안녕하세요. 새 학기가 늘 그러하듯, 긴장과 기대로 시작한 이번 봄 학기도 어느새 끝나고 한층 더워진 날씨 속에 저희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봄 학기에는 최신옥 이사님과 한인회의 후원 속에 요리 교실을 오픈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미국인에게 한식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알리고 한국인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 어떠한 사례도 없이 아낌없는 후원으로 수업을 맡아주신 최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야동반에서는 개강 첫날에 함께 만들었던 칭찬 통장을 가지고, 자신들이 모은 칭찬 스티커로 마지막 날 시장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진계선 어머니님과 교감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먹어봄 직한 분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주셨고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문구와 책을 판매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인회 회장님과 임원님들, 학부모님들이 모두 함께 참석한 중강식 겸 졸업식으로 이번 학기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 봄 학기에는 4명의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한서희, 한준희, 진수민, 그리고 멀리 산타페에서 오던 류인호 학생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3명의 친구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예정이고 인호 군은 진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산타페에서 아침마다 장거리 운전 을 마다하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인호를 데리고 오신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어디서든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할 인호 군을 응원합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번 여름에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중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는 한국어 집중 코스를 운영할 예정이고 8

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Go!!구려”라는 주제로 아동을 위한 역사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사항들은 곧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며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학교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잊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뉴멕시코 지역사회 소식

2019년 제22차 세계한인 차세대 대회 모집 공고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각국에 있는 미래의 한인 차세대 지도자들의 역량결집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동포인재들을 모국에 초청하여 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22nd Future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합니다. 2019년 9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역량 있는 차세대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행사개요

가. 행사명 : 제22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 영문 : The 22nd Future Leaders' Conference

나. 목 적

○ 재외동포 차세대의 역량결집과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원

○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별 주요인재 발굴

다. 기 간 : 2019. 9. 2(월) ~ 9. 6(금) <4박 5일>

라. 지 역 : 서울(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및 지방(미정)

마.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임시정부 수립 100년, 한인사회 미래 100년'을 기조로 모국 체험프로그램 진행

○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 연설

○ 분야별 포럼 및 주제 강연

○ 정부기관 방문 및 관련인사 예방

○ 국내외 동포간 네트워킹 활동 및 모국문화 체험

○ 국내 주요 언론사 인터뷰 및 취재 등

2. 참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가. 신청자격

○ 25~45세의 한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장기체류자 등 10년

이상 현지 계속 거주한 자

○ 재외동포 교류촉진 및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 분야

- 정치, 경제, 법률, 주요 언론, 문화, 예술 및 국제기구

종사자 등

- 지역별 우수 차세대 단체, 전문가 단체의 임원 등

- 경력 및 활동내용이 동 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선정기준

○ 종사 분야 전문성, 향후 성장 가능성

○ 신청 동기 및 참가 의지

○ 거주국 및 한인사회 활동내용

- 사회공헌 및 기여 내용, 참여 및 활동 실적

○ 해당분야 업적 및 언론소개 내용(참고)

○ 기타 추천 특이사항 등(참고)

다. 모집인원 : 국외 100명

라.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한국시간 기준)

- 개인 신청 : 공고일 부터 ~ 5. 6(월)

- 공관 검토 및 재단 제출 : 5. 17(금) 까지

- 선발 결과 공지 : 5. 29(수) 이전 (개인 이메일, 관할공관 통보)

○ 온라인 지원신청 방법

- 접속 사이트 : www.korean.net

- 개인 :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후 신청 완료 (※공관 제출 불요)

※ 첨부 자료 업로드 : 이력서,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활동 및 경력 관련 언론기사, 수상 경력 등

- 공관 : 지원신청 내역 확인 → 공관 의견 및 추천 순위

작성 등

- 이용방법

· 개인 : ID/PW 로그인(신청자 본인 명의 ID) → 재단 사업 → 초청 사업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자료 업로드 → 저장(제출기한 내 수정 가능) → 신청완료(수정 불가)

· 공관 : ID/PW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목록 및 신청서 확인 → 공관 의견 및 우선순위

작성 → 신청목록 엑셀 다운로드 → 신청목록 첨부한 공문 재단 송부(5.17 이전)

3. 지원내용

가. 항공료 : 왕복 항공료(일반석)의 50% 지원

○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참가자 및 러시아·CIS지역

고려인은 왕복 항공료(일반석)의 70% 지원

※ 항공료 지급원칙

- 항공료는 재단이 정한 상한액 내에서 집행하며 차액

발생시 본인 자부담

- 대회 참가목적 외 개인목적으로 타지역 경유시 해당

항공비 본인 자부담

나. 숙식

○ 숙박 : 2인 1실(1인실 사용 시 차액 본인 부담)

○ 식사 : 1일 3식(대회기간에 한하며 개인사용 경비 제외)

다. 여행자 보험(행사 기간에 한함)

4. 문의처

가. 담당자 : 차세대사업부 김정혜 차장

나. 연락처 : 82-2-3415-0176, jheakim@okf.or.kr

다. 참고 :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www.korean.net)

공군기지 에어쇼에 여러분을 초대



오는 5월 18일에 거행되는 에어쇼, 항공우주 피에스타 (Air and Space Fiesta)에 앨버커키 시민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커트랜드 공군기지에서 발표했다. 올해 에어쇼에도 예년과 같이 미 공군 곡예비행단인 선더버즈(Thunderbirds)가 하늘에서 멋진 쇼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입장은 아침 9시부터이다. 일반 시민은 Eubank Gate로 들어가서 지정된 주차장에 차를 두고 기지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전시장으로 가면 된다. 셔틀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운행하며 퇴장하는 손님을 위해서는 끝나는 시간까지 운행한다.

피에스타 전시장에는 2차대전 때에 사용된 B-17, B-25와 TBM Avenger항공기를 비롯하여 F-35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 등 다양한 비행기가 전시된다. 가장 인기 있는 선더버즈의 에어쇼는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선더버즈가 운용하는 항공기는 F-16 파이팅 팰컨으로 기체 밑에 백, 청, 적색의 색깔로 그려진 피닉스(Phoenix:신화에 나오는 불사조) 페인트가 특징적이다. 6기 편대로 공중곡예 비행이 실시한다.

현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과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을 기지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데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유아용 기저귀 가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소프트 드링크, 카메라, 사진 장비(8"x8"크기의 가방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함), Sunblock, Lotion, 양산, 의자 등이며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얼음통(Cooler), Backpack가방, 8"x8" 보다 큰 가방, 주머니칼, 총기류, 알코올(술), 스케이트보드, 애완동물, 드론 등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에 적은 공군기지의 에어쇼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https://kirtlandforcesupport.com/kafb-air-space-show/>

36회 파우 와우(Pow Wow) 미 원주민 행사 열려

세계에서 가장 큰 아메리카 원주민의 모임인 Gathering of Nations Pow Wow가 앨버커키에서 4월 마지막 주말인 26, 27일에 산페드로/센트랄에 있는 엑스포 뉴멕시코, 팅글리 콜로세움(Tingley Coliseum)에서 열렸다.

이 행사 중 하나인 미스 인디언 월드 경연 대회(Miss Indian World Competition)는 하루 전날인 25일 오후 7시에 다운타운에 있는 앨버커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파우와우에 참가하는 인디언 부족 수가 750이 넘고 각 부족을 대표해서 춤과 노래를 하게 될 참가자 3,000명이 경연하는 이 모임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북미지역의 모든 원주민이 함께하는 대축제였다.

인디언 공예품 판매 시장도 열렸다. 여기에는 800명이 넘는 인디언 미술가 공예품 작가가 참여했다.

자세한 정보는 www.gatheringofnations.com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



지난 3월-4월의 주요 소식

산타페 한인교회 효도관광

산타페 한인교회는 2019년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관광이 그것이다. 효도하는 것을 교회가 직접 관심 갖고 앞장설 때 성도들에게는 말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두달여 전 미리 교회에서 광고하고 참석자를 모집했으나 몇분 어르신들은 세도나까지 장거리 승차가 걱정되시어 못 가신다 하셨다. 하지만 빈자리를 젊은 여집사들이 봉사자로 함께 하겠다고 직장까지 쉬면서 참여하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12인승 승합차를 렌트해서 출발한 관광 일정은 1박 2일로 세도나 근처인 플래그스태프에서 일박하고 다음 날 세도나를 관광하고 오는 일정이었다. 플래그스태프 근처 운석이 떨어져 5만 톤 TNT 위력으로 폭발, 분화구가 생긴 METEOR CRATER에 들려 멋진 광경을 목격하고 영화도 보았다. 저녁에 예약해놓은 산속 산장에 도착, 맛있는 저녁 식사후 함께 윗놀이를 했는데, 윗을 가지고 오신 임경애님은 “한국에서 30여년 전 윗을 가져와서 오늘 처음 사용해본다.”고 기뻐하셨다. 둘째 날 세도나로 내려가 Bell Rock을 관광하고 산책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을 기약했다.



아래는 이번 여행에 참여하신 임경애 님의 글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후다닥, 짧고 신나게 애리조나 주에 다녀왔습니다. 어버이날의 효도 관광을 미리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그 긴 시간 운전을 하시고 상냥하신 봉사자들과 오가며 나누는 대화들, 노래들 눈물이 나도록 웃어 재밌습니다. 숲속의 아늑한 집 한채를 통째로~ BBQ에 윗놀이, 늦은 밤까지 떠나갈 듯이 아우성(?)치었는데 내참, 돈 잃고도 이렇게 신나는 게임이 윗놀이 란것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Meteor Crater는 약 5만년 전에 생긴 유성 분화구인데 축구장 20개의 크기와 60층의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웅덩이였습니다. 두 번째의 견학인데 역시 입이 딱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랜드 캐니언을 만드시고 이곳에서 사셨다는 Sedona는 한국인들이 ‘기’ 받으러 빼놓지 않고 거쳐 가는 곳, 세번째 방문인데 틈 만나면 오고 싶은 곳입니다. 짧지만 풍성했고 많이 웃을 수 는 여행이었습니다. ■

세계최대항공기, 스트래토 첫시험비행



우주개발업체 스트래토론치 시스템즈(Staratol Launch Systems)가 개발한 세계 최대 크기의 항공기 '스트래토'가 4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 상공에서 첫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한다.

스트래토는 이날 시험비행에서 시속 약 173마일까지 속도를 높였고 1만5천 피트 높이까지 올라갔으며 2시간 반 동안의 비행을 마친 후 모하비 공항·우주항에 안전하게 귀환했다.

스트래토 항공기의 외모는 일반 항공기와는 아주 다르게 설계됐다. 거대한 날개에 두 개의 동체가 달린 형태다. 날개 길이가 축구 경기장 사이드라인보다 더 길다. 지구상의 어떤 비행기보다 긴 날개를 가졌다. 제트 엔진이 6개나 되고 착륙용 바퀴가 28개나 된다. 성능과 안전성 검증이 끝나면 두 개의 동체 사이 날개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달고 고공으로 올라가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발사해 올리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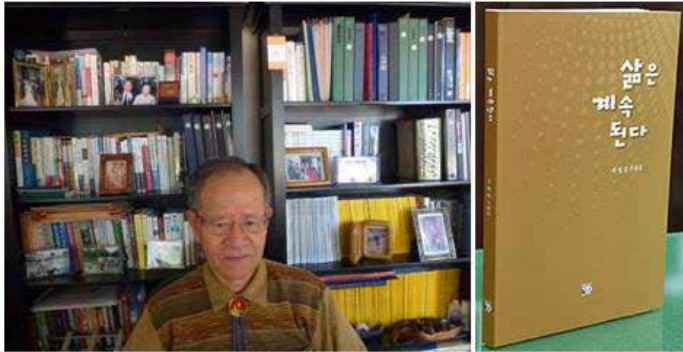
스트래토론치 시스템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인 폴 앨런이 2011년 설립한 회사다. 앨런은 스트래토의 첫 비행을 보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숨졌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탐사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같은 제트기에서 위성을 발사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지상에서 발사하는 방식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트래토론치는 미국 내에 인공위성 발사를 해온 유나이티드 론처 얼라이언스(United Launch Alliance)와 새로 우주 항공계에 뛰어든 스페이스엑스(Space X)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뉴멕시코 지역사회 소식

전남대 이정길 명예 교수 수필집 '삶은 계속된다' 발간



이정길 명예교수의 수필집이 한국에서 발간되었습니다. '광야의 소리'지에 수년간 기고해주고 계신 이정길 교수의 두 번째 수필집이 되는 '삶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수필집은 동인출판문화원 출판으로 발간되었고 내용을 보면 사모님을 여읜 다음 가슴속에 서린 정한을 표출한 작품들을 모두 여섯 개의 주제 (반쪽을 여의고 / 같은 것 다른 것 / 피조물들 / 이런저런 일 / 심신을 평온히 / 일상의 변두리)로 모아서 각각의 주제 아래 10편의 수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삶은 경험의 연속이며, 살다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도 수없이 겪는다. 삶 자체가 실재하는 스승이 될 수도 있다.”며 “수많은 생각 속에 두 해를 보냈고, 그 두 해는 일생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해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는 것이라, 와중에도 마음을 다잡고 쓴 글의 묶음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는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40여년 교수 생활을 마친 뒤 알버커키로 오셨고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수필집 '평일에는 놀고, 주말에는 쉬고'(창조문화사, 2017)를 발간한 이후 두 번째로 발간한 수필집입니다. 전남대 재직 당시에는 국내외 학술논문 150여 편을 발표했으며, “유머의 미학(전남대 출판부, 2007)”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수의학과를 나와 대학원 과정을 마친 뒤 교직에 몸담다 호주 유학길에 올라 제임스 쿡 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구입안내: 인터넷 서점 BandibookUS.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편집부)> ■

알버커키 고등학교 졸업률 향상

알버커키 저널 신문 기사에 의하면 2018년 알버커키시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률이 서서히 향상되고 있다. 2017년은 71.1%였고 2018년은 73.9%로 향상되었다. APS에 속해있는 고등학교별 졸업률 통계를 아래에 소개한다.

3월 첫 영사업무 실시, 76건 처리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민명희)는 지난 3월 26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파견 나온 순회 영사업무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에는 재외동포재단의 이종미 영사를 비롯한 2명의 실무관이 파견되었고 뉴멕시코 한인회의 민명희 회장과 박찬영 이사장이 서류작성 및 안내를 도왔다. 올해 처음으로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함으로 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서정연하게 운영되어 많은 수의 업무를 빠른 시간내에 처리 할 수 있었다. 처리 내용으로는 가족관계 등록 관련이 가장 많았으며(18건) 여권(13건)과 공증에 관한 서류 작업(14건), 국적 관련(6건) 등의 업무가 처리되었다.

민명희 한인회장은 “바쁜 시간을 내서 업무를 보러 오시는 교민분들이 이번 영사 업무에서 사전 예약제를 통해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업무를 볼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았으며 아침부터 피곤하실 텐데도 친절하게 교민분들을 응대해 주시는 영사님과 실무관님, 그리고 보이지 않은 곳곳에서 고생한 한인회 임원분들과 이사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



APS TRADITIONAL HIGH SCHOOL GRADUATION RATES

	2015	2016	2017	2018
Albuquerque High	66.9	70.4	70.1	72.8
Atrisco Heritage Academy	60.5	69.7	70.8	70.8
Cibola High	72.1	74.9	78.1	82.4
Del Norte High	52.4	55.4	58.6	57.9
Eldorado High	73.5	78.4	78.8	79.7
Highland High	49.2	57.8	54.2	59.4
La Cueva High	81.4	84.9	87.4	88.5
Manzano High	62.6	70.6	75.8	72.0
Rio Grande High	58.7	65.8	61.0	61.0
Sandia High	76.3	73.8	79.2	77.3
Valley High	65.0	67.3	75.2	67.6
Volcano Vista High	75.3	79.5	84.7	82.3
West Mesa High	59.1	67.4	63.8	67.9

지난 3월-4월의 주요 소식

블랙홀 사진 처음으로 공개

인류 최초로 블랙홀의 실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지난 4월 10일 공개되었다. 이번 블랙홀 관측은 하나의 관측소가 아닌 하와이, 애리조나, 칠레, 멕시코, 스페인, 남극에 있는 8개의 전파 망원경을 모두 연결해 지구 크기의 망원경을 쓴 것과 같은 효과를 얻도록 여러 곳에서 관측한 신호를 병합해서 사진을 만들었다. 사진에 찍힌 블랙홀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거리에 있는 Virgo 별자리에 속해 있는 태양의 질량의 65억배가 되는 초대질량 블랙홀 'M87'이다.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EHT)' 프로젝트 총괄 단장이자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의 셰퍼드 도엘레만(Shepherd S. Doleman) 박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제 블랙홀에 대한 시각적 증거를 갖게 됐다. 블랙홀의 모습은 일관되고, 블랙홀의 그림자 모양을 가지고 있어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블랙홀은 워낙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어서 인해 빛을 포함한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다. 사진의 블랙홀은 블랙홀 뒤에서 온 빛이나 주변의 빛이 블랙홀의 중력에 휘감겨 형성된 고리 모양의 구조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고리 안의 어두운 공간은 빛이 빠져나오지 못해 형성된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불린다.

■



리오란초 인텔사 시설투자 확장



최근 인텔사에서 산도발 카운티에 제출한 년례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이곳 생산공장시설에 1억3,500만불의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텔사의 대변인인 Linda Xian 씨는 최근 이와 같은 뉴멕시코 공장시설 투자를 계속하게 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력보충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 분야의 일자리 모집 광고가 웹사이트 intel.com/nmjjobs에 올려져 있다고 한다.

지난한해 리오란초 사에서만 운영비로 2억불을 썼고 신규 채용한 직원은 168명이라고 한다. 이중 약 1/3의 인력은 뉴멕시코 현지에서 채용했다.

이곳 인텔사는 1980년에 리오란초에 들어와서 컴퓨터 칩 생산공장으로 세계적 첨단기술을 주도해왔다 2013~2016년 기간 회사는 감원을 하여 2000명 수준으로 내려가기도 했으나 이곳 인텔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를 늘려가면서 확장되는 추세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고 산도발 카운티의 커미셔너 Jay Block 씨는 말하고 있다.

참고기사: Albuquerque Journal, April 26, 2019. "Intel report shows increase in NM hiring, capital investment." by Stephen Montoya. ■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2019 부활절 예배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번 부활주일에 여러 교인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을 사겠습니다.” 수요 새벽예배를 마치고 김 장로님께서 던진 말씀입니다. 2019년 부활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행위에는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란 혼자서 기도를 하는 경우나 수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것이지요. 여럿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예배를 드리려면 질서와 순서가 있어야 하지요. 또한 질서를 유지하고 순서를 진행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진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드러나는 모습만 보게 되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또는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숨어서 준비하는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찬양대는 부활절 성가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찬양대원들은 예배를 마친 후 오후 3시 30분까지 남아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실로 부활주일에는 헨델의 “할렐루야”를 비롯한 은혜로운 찬양들을 듣게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큰 예배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교회 회원들의 수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주일 뷔페식으로 풍성하게 준비된 음식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족했지요.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식재료들을 준비하고 요리하는 수고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마친 후에 입구에서 조그만 바구니를 들고 예쁘게 포장한 계란을 나눠주던 아이들을 기억하시나요? “Happy Easter!”라고 하면서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조그만 손으로 계란을 나눠주던 아이들은 교회학교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도 부활주일에는 선생님들이 준비한 특별 인형극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인도했던 찬양팀, 예배 순서를 담당한 예배위원들, 세례식을 준비하던 위원들,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던 안내위원들,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던 사람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절이면 읽는 성경 본문을 보면 의문이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었는가? 왜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고 여인들만 무덤을 찾아왔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여러 번 예수님께서 삼 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도 예수님께서 삼 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등입니다. 부활 본문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십자가 사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은 그 처참한 장면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 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도 아무 말이 없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지요. 전에는 바리새인들의 거짓 신앙을 책망하고 저주하시기도 하셨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휘두르며 쫓아 내시기도 하셨던 그 무섭도록 엄격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쏟아진 멸시 천대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피가 흘러내리고 쉼 새 없이 내리치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으로 온몸은 찢겨져 피로 엉겨져 있었으며 못이 박혀있는 팔과 다리며 창으로 찢겨진 옆구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분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다고 예고는 하셨지만 완전히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볼 때에 부활 예고는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요. 부활절 아침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삼 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활 소식은 충격이며 반전이었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셨기에 도저히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찾아올 때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무덤을 나갈 때는 큰 기쁨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부활은 반전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좌절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



보은하는 새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까마귀는 참새목에 속하여, 참새 꼬꼬리 제비 등과 함께 명금류로 분류된다. 전 세계에 300여 종이 분포하는데, 검정 바탕에 보라색이나 녹색 광택이 나는 몸빛을 지니고 있다. 인가 부근의 나뭇가지, 절벽, 송전탑, 오래된 건물 등에 둥지를 틀고 살면서, 이른 봄에 네다섯 개의 알을 낳아 번식하는 잡식성 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다. 고구려 벽화에 자주 등장하는 세 발 달린 까마귀 [三足鳥]는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태양 속에 산다고 여겨졌던 전설의 새로, 흔히 해를 상징하는 동그라미 안에 그려진다. 우리 민속에는 칠석날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까마귀와 까치가 모여 은하에 다리를 놓는다는 전설이 있고, 남원 광한루의 연못에는 그 오작교가 걸려 있다.

여러 원시 민족들의 민간전승이나 신화에도 나오는 문화 영웅 또는 초자연적 존재였다. 북유럽에서는 길조로 알려져 왔으며, 영국에서는 왕의 새로 대접받기도 했다. 북태평양 연안에 사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까마귀를 신령스러운 동물이면서 장난꾸러기로 생각했다. 여러 가지 차림으로 출현하여, 짓궂은 짓을 한다.

우리는 그저 까마귀라고 부르지만, 녀석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국 동아시아 서유럽에 분포하는 것들은 비교적 작은 Crow이며, 미주에는 작은 까마귀에 더하여 Raven 이라고 부르는 대형 까마귀도 산다. 둘은 너무 비슷해서 구별하기 쉽지 않으나, 주의해서 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레이븐은 짙은 지어 날아 다니는 반면 크로우는 때를 지어 날아 다닌다. 꼬리를 퍼면 크로우는 부채 모양이지만 레이븐은 V자형이 된다. 크로우는 까악까악 울고, 레이븐은 짧고 날카로운 소리로 낮게 운다.

더러 농작물에 해를 주지만, 농작물을 해치는 해충을 없애 주기도 하는 새다. 검은 색깔에다 연속으로 내지르는 우는 소리 그리고 찢은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까마귀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우는 소리는 재물을 잃거나 나쁜 일이 생길 흉조로 여긴다. 몹시 더러운 것을 까마귀 발이라고 하고, 주인 없는 시체가 되어 버려지는 것을 까마귀 밥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타향에서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고향 까마귀라며 반긴다.

어미 크기의 2/3가 될 때까지 새끼들은 나뭇가지에 앉아 먹이를 받아 먹는다. 아직 날지를 못해선데, 덩치 큰 녀석들이 애교를 떨면서 먹이를 먹는 모습은 귀엽다. 어미는 새끼를 마치 사람이 자식을 대하듯 애지중지하면서, 나는 법이며 우는 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까마귀도 제 새끼가 자장 예뻐 보인다는 말도 생겼다.

새끼는 자라서 늙은 어미를 돌본다. 안갯속할 줄 안다거나 은혜를 갚는 까마귀라는 뜻으로 반포조 反哺鳥 또는 효조 孝鳥라고도 부른다. 그밖에 자오 慈鳥 자조 慈鳥 한아 寒鴉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자식이 커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르는 반포지효 反哺之孝는 까마귀를 두고 나온 말이다. 아무 상관없이 한 일이 우연히 다른 일과 때가 같아서 두 일 사이에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괜히 의심 받게 되는 것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鳥飛梨落] 고 하지만, 까마귀들의 보은 행위를 오비이라라고 볼 수는 없다고 나는 믿는다.

여덟 살짜리 개비가 사는 시애틀 부근에는 보은하는 작은 까마귀들이 산다. 개비는 그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는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물을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까마귀들이 물어다 준 선물은 금색 구슬, 진주 귀걸이, 나사못, 레고 조각, 색유리 조각, 닭 뼈, 조약돌, 석영 결정체 등 대부분 반짝거리는 것들이다. 개비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는, 하트 모양의 조그마한 핑크빛 진주와 직사각형의 은 조각에 '최고' 라는 글자가 쓰인 장식물이다. 분명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져다 주었을 거라면서, 언젠가는 꼭 '친구' 라고 새겨진 장식물을 물어 올 것으로 믿는다.

생선 뼈를 물어다 준 날 오후였다. 모이를 챙겨 주려고 나가 보니, 굴 빛깔이 나는 것을 물고 있던 녀석이 전직줄로 올라왔더니 그걸 개비의 발 앞에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고무로 만든 조그마한 오징어를 집어 든 개비가 "장난감이다!" 외치며 기뻐서 깡충거렸다. 스파이처럼 항상 자기를 지켜보며, 선물을 날라 온다고 말한다. 얼룩진 것들이지만, 품목 낱자 종류별로 나누어 하나하나 상자 안의 칸에 저장한다.

개비는 서너 해 전부터 땅콩이나 개의 먹이를 까마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모이통에 담아내다 걸기 시작했다. 개비가 친절을 베풀었기에 까마귀들이 선물을 날라다 주는 걸까? 까마귀들이 과연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까마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21세기 들어 까마귀와 앵무새가 자물쇠도 열고 저들이 사는 데 필요한 간단한 도구도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져, '깃털 난 원숭이' 라고 불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체중에 비하면 사람의 뇌는 약 2 퍼센트이고, 까마귀의 뇌는 1.3퍼센트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

타박타박 미국여행 : 아리조나(2) 그랜드 캐니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어 방송에서 아리조나주가 소개됐다. 뉴멕시코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리조나를 소개한 방송 프로그램 녹취를 2부로 나누어 소개한다.

애리조나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그랜드 캐니언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하는 곳인데요. 애리조나 주 역사기록연구소 문헌 담당 수잔 어윈 씨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녹취: 수잔 어윈 씨] “애리조나주는 그랜드 캐니언주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그랜드 캐니언의 대부분이 애리조나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일부가 이웃 네바다주에 접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네바다주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한데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리조나주...하면 그랜드 캐니언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랜드 캐니언을 우리 애리조나주의 상징으로 선택했습니다.”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리조나에 가면 사막하고 돌 밖에 뭐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애리조나에는 미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자랑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리조나 제2의 도시 투산에 있는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 박물관인데요.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 박물관은 동물원과 식물원, 자연사 박물관도 겸하고 있다고 해요.



[녹취: 이성호 회장] “그랜드 캐니언은 계곡입니다. 사이즈가 전라남·북도 합친 것 만한 깊은 계곡입니다. 원주민 인디언들이 살던 곳입니다. 콜로라도강이 흐르기 때문에 계곡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마어마하고 장엄하죠. 깊이도 몇천 미터 되는 곳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1천m 이상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거대한 계곡, 협곡이라는 뜻인데요. 콜로라도 강줄기를 따라가는 그랜드 캐니언은 그 길이가 277mi, 445km에 달합니다. 평양에서 신의주를 왔다 갔다, 왕복할 정도고요. 계곡의 깊이도 1.5km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인데요. 829m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그랜드 캐니언이 얼마나 크고 깊은 계곡인지 조금 짐작하실 수 있겠죠? 신이 빛은 지상 최대의 조형물이라고 불릴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의 신비를 품고 있는 곳, 이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쿠거라고도 하는 퓨마는 야생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인데요. 하지만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 박물관에는 이런 퓨마는 물론, 멸종위기에 처한 멕시코 여우, 늑대의 일종인 사나운 코요테, 빨 산양 등 무려 300여 종의 동물이 살고 있고요. 사막 선인장을 비롯해 1천200여 종이 넘는 각종 식물을 접할 수 있다고 해요. 일반적인 동물원처럼 울타리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동물들은 마치 야생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칫 구경하는 사람들,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크레이그 이바니 애리조나 소노라 박물관 관장은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녹취: 크레이그 이바니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 박물관 관장] “모든 곳이 장벽이나 해자, 담장 같은 것으로 다 둘러쳐져 있는데요. 관광객 눈에 잘 안 띄게 고안돼 있어서 육안으로 쉽게 보기 어려울 겁니다. 소노라 박물관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사막의 동물들과 사막의 식물들이 풍성하게 있는 곳이니깐요. 관광객들은 도시 속의 동물원이나 식물원이 아니라 마치 드넓은 사막에서 동물과 바로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심분 살려 만든 곳인데요. 박물관의 부지는 98에이커, 그러니까 10만 평이 넘는데, 이중 약 21에이커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3km 길이의 산책로를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자가 평균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데요. 이 애리조나 사막 박물관이 멕시코와 맞닿은, 서부의 비교적 오지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 12페이지로 계속 >

건강상식

치과 이야기 (3)

윤자정

Los Lunas Smile
NAPA Family Dentistry

겨울의 추위가 한풀 꺾이고 완연한 봄이 다가온 거 같습니다. 이제 두터운 코트는 잠시 정리하여 두셔도 될 거 같네요. 이번 달에는 치주염 (풍치) Periodontal disease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풍치라는 것은 치주 질환을 의미합니다. 잇몸, 치조골, 치주인대 등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가 녹고 잇몸이 부어오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바람이 든 것 같아서 풍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치주병은 이를 잘 닦지 않아서 치아 주위가 불결하거나 치석이 많아서 생기게 됩니다. 치면 세균막 (Plaque)의 독소에 의해 치아와 잇몸을 부착시켜주는 부분이 파괴되어 치아와 잇몸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이 벌어진 틈을 치주낭 (Periodontal pocket) 틈으로 점점 더 많은 치면 세균막과 치석이 쌓이게 되고 그 틈은 더욱더 깊어져 제거가 불가능한 깊은 치주낭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은 뼈가 파괴되고 치아를 발치 혹은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염증 때문 만에 치주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입속 또한 나이가 들며 점점 잇몸이 내려앉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에 염증마저 생긴다면 아주 큰 문제겠죠.

기본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1. 올바른 양치질, 치실 습관으로 항상 입안을 청결히 유지하고, 심각한 구강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진료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입속의 염증이나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셨어도 이후 케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언제든 다시 제발 할 수 있으니 예방과 정

기검진은 필수입니다.

2. 본인의 치아를 대체할 만큼 좋은 보철물은 없습니다. 뽑지 않고 최대한 자연치를 살리는 게 최선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상태에 따라 신경치료, 골이식 (Bone graft) 으로 이빨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치조골 손실 뿌리만 남은 경우 등 복잡한 케이스도 수준 높은 치료에 따라 좋은 예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3. 발치 이후 임플란트도 하나의 치료법입니다. 이런 경우 골이식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후가 많이 틀릴 수 있으니 의사와의 상담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구강 구조는 개인이 혼자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임시 대책의 방편으로 마냥 진통제만 드시는 것은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풍치로 인해 잇몸뼈가 손실됐다는 진단을 받으신 경우, 이를 닦을 때 피가 나오거나 구취가 심하신 분, 통증이 느껴지시고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치주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필요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본인 치아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그랜드 케니언 < 151페이지에서 계속>

[녹취: 크레이그 이바니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 박물관 관장]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사막에도 이렇게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래요. 그래서 소노라 사막과 이곳에 사는 동식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열정같은 것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리조나...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사막의 꽃 선인장입니다. 특히 애리조나에는 서과로라는 이름의 독특한 선인장이 있는데요. 마치 양팔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양의 서과로 선인장은 애리조나주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녹취: 매조리 매그너슨 공보관]

“서과로는 애리조나 사막과 멕시코 일부 땅에서만 자라는 선인장입니다. 서과로 선인장은 하얀 꽃이 피는데요. 흔히 볼 수 없죠. 애리조나주를 대표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팔 같아 보이는 게 자라기까지 몇십 년은 걸려요. 10m, 20m까지 훌쩍 자라는 서과로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혹독한 자연환경이지만 사막이 주는 선물이 가득한 곳. 애리조나 사람들은 그 혹독한 자연환경을 신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가꾸고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이야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박영서였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음악 교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뉴멕시코 음악학교의 서유경입니다.

저는 음악 전공을 했고, 지난 20년 동안 교회 지휘 및 반주 솔리스트 그리고 이곳 알버커키에서는 뉴멕시코 음악학교에서 피아노와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피아노 및 음악 교육 전반에 대한 관심사들을 알려드리기를 원하며, 자녀의 피아노 및 다른 악기 교육을 시킬 때 있을 수 있는 궁금점들이나 혹은 자신의 음악교육에 대해 갈등 나는 점 들을 도와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단 풍부한 음악적 환경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유아기에 기본적인 음악성을 기르는 훈련이 먼저 되어 있으면 악기를 배울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바로 악기 교육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연주를 위한 두 가지의 요소를 동시에 배워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즉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를 동시에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음악을 머리와 마음으로 동시에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악기를 능수능란하게 연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겉으로 그럴싸하게 연주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것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손가락 기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부모들은 아이의 음악적인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의 음악적인 재능의 부족으로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유아기에 기본적인 음악성을 기르는 훈련이 먼저 되어 있으면 악기를 배울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아기는 음악적 잠재 능력을 갖추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2세 이하의 아기는 적절한 교육과 자극을 통해 음악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아이를 둘러싼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음악과 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쁜 소리가 나는 장난감, 좋은 음질의 CD를 한 번씩 틀어주신다거나, 엄마 아빠와 대화를 할 때도 리듬을 넣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음악을 들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즐거운 음악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피아노 교육은 알파벳을 어느 정도 익힌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으므로 만 4~5세가 적기라고 많은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건반을 힘 있게 누르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강약으로 누를 수 있을 시점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또한 10~15분 정도는 집중할 수 있고 박자를 세기 위해 숫자를 5까지 셀 수 있어야 피아노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악기 교육은 어느 정도 신체 발달이 이뤄진 5~6세 이후가 적당하고, 바이올린은 3세부터라는 선생님도 있지만 한쪽으로 처음에 피아노 등의 악기로 음악성을 기른 후에 5~6세로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악기 선택은 아이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서유경

New Mexico School of Music

성악/피아노 음악교사



다음 선택하고, 아이 스스로 원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음악교육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잘 맞는 교사나 교수법을 선택한 다음, 진도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의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참고 기다려 줘야 합니다. 이때 잘못하면 악기 교육은 아이에게 평생 음악은 어렵고 지루한 것이란 인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가 배울 때 부모님도 옆에서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혼자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듯 악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같은 시각으로 보며 함께 재미있게 연습한다면, 쉽게 지겨워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흥미와 유대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도움이 더 필요하고, 아이에게 선생님만 붙여줬다고 아이의 악기 교육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이의 레슨 시간에 같이 참여하여 교사와 함께 공부한 것을 부모님께서 알아두도록 하셔야 합니다.

악기를 배움으로써 얻는 여러가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감
악보 읽기로 시작해서 의미 있는 음악 만들기를 함으로써 표현력과 발표력이 좋아지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울 수 있다
- 창의성
음악을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을 신장시키고 창의성을 길러주어 잠재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사회성
음악을 매개체로 친구, 교사, 부모님과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사회성도 발달한다. 그룹 연주, 이론 클래스, 리사이틀 참여 등이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 문제해결 능력
음악 language를 배우고 해석함으로써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 언어발달
노래 부르고 음악 듣기는 어린이의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언어발달을 도와준다.

< 15페이지로 계속 >

반델리어 내셔널 모뉴먼트 공원



지난 3월20일 뉴멕시코 미 상원의원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D-NM))는 반델리어 내셔널 모뉴먼트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반델리어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제출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연설을 통하여 “뉴멕시코의 독특한 점을 얘기할때에 우리는 늘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과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말합니다. 반델리어는 이 세가지를 다 갖고 있는 곳 입니다. 나는 이지역의 원주민 지도자와 지역사회 여러분과 협력하여 이 곳을 반델리어 국립공원/보존지역(Bandelier National Park and Preservation)으로 승격시키는 입법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이곳의 자연미가 더 많은 관광객에게 보여질 것이며 국내외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유적지 보존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위원 하인리히가 말했듯이 뉴멕시코의 아름다운 경치, 문화와 역사 세가지를 모두 갖고있다는 반델리어 내셔널 모뉴먼트(Bandelier National Monument)는 어떤 곳 인지 를 광야의 소리 독자에게 소개하려고 한다.

반델리어는 로스 알라모스(Los Alamos)에서 약 10 마일 서남쪽에 있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다. 공원으로 정해놓은 지역은 헤이메즈(Jemez) 산 분화구 정상에서부터 리오 그란데(Rio Grande)강까지 연결되는 파하리토(Pajarito)

용암대지(Volcanic Plateau) 지역으로 면적은 46 평방 마일이다. 앨버커키 도시 면적의 약 1/4이 되는 넓은 지역이다. 케니언 주변 경치가 아름답고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푸에블로 인디언 선조의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매년 20만명 정도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이 공원의 자랑할 점은 헤이메즈산맥의 프리홀레스 캐니언(Frijoles Canyon)

큐웨니 옛날 모습의 상상 모형

으로 불리는 계곡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600년 전에 푸에블로 인디언의 선조들이 거주했던 대형 주택의 흔적이 보존되어 있는 유적지라는 점이다.

프리홀레스 캐니언(Frijoles Canyon) 으로 불리는 계곡 안에 지금의 푸에블로 인디언의 선조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다. 이 자리를 큐웨니(Tyuonyi:QU-weh-nee) 유적(Ruin)이라고 부른다. 건물을 원형 구조로 짓고 입구를 하나만 만든 것을 볼 때 외부 침입을 막기 좋도록 건축한 것 같다. 아래층에 방이 245개, 2층과 3층 방을 모두 합치면 400개의 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약 100명 정도의 인디언이 거주했다고 하니 대부분의 방은 창고라든지 다목적 용도로 썼던 것 같다. 건물로 둘러 쌓인 마당에는 원형의 지하건물 흔적이 있는데 종교예식이나 회의장소로 썼던 키바(Kiva)가 있던 자리이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 모임에 오셨던 목사님과 가족을 이곳 공원에 안내했던 일이 있었다. 그때 시인이기도 한 임찬순 목사는 유적지를 보며 시를 지었는데 그중 키바에 대해 언급한 시의 한 부분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반델리어 기념공원
인디언들의 유적지는
우주의 중심
바위 속에 굴을 파고
벽돌을 쌓아 집을 짓고
키바를 만들어
모두 함께 살며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뤘다.
오늘을 사는
이 땅의 교회공동체들의 기원이었다.

그 곳에 서서 보면
하늘의 열리고
나무들이 환호하며
바위들이 도열하여
빛을 발하고 서 있다.





바로 이 곳은 삶의 터
하늘과 땅
자연이 만나는
거룩의 성소



고 방의 벽이었던 절벽 암석에 새겨놓은 암각화 (岩刻畵, Petroglyph: 페트로글리프)도 볼 수 있다. 롱하우스를 지나 북쪽으로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알코브 하우스(Alcov House)가 있다. 절벽 높은 곳, 140ft 높이에 움푹 들어간 굴에서도 인디언이 거주했던 유적이 있다. 네 개의 사다리와 계단을 연속 반복해서 140ft 높은 곳까지 기어 올라가는 도전이 필요하다. 이 굴 안에는 잘 복원된 키바가 하나 있다. 사다리를 타고 키바 안에 내려가 볼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디언 문화 체험의 좋은 기회가 된다.

최근 이곳 모뉴먼트 공원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에 어려움이 생겨 셔틀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방식을 도입했다. 5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방문할 경우에는 화이트 락(White Rock)에 있는 방문객 센터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셔틀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주말에는 20분 간격으로, 주중은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3시 이후에는 개인 승용차 방문을 허용한다. 대형버스로 단체 입장하는 경우나 캠프장에서 야영할 계획인 경우, 장애인 주차 허가를 가진 차량은 시간 제약 없이 공원에 들어 갈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s://www.nps.gov/band/> 또는 (505) 672-3861 x 517에 문의하면 된다.

글: 편집부(이경화) ■

무엇보다도 관광객을 놀라게 하는 신기한 경치는 유적지를 지켜 주듯 병풍같이 북쪽 배경이 되고있는 구멍이 뿔뿔 뚫린 절벽이다. 이 절벽 바위는 약 100만년 전 이 곳 헤이메즈산에 화산 폭발이 있었을 때 뿜어나온 화산재가 1000ft. 두께로 이 지역을 덮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산재가 굳어져 바위가 된것이다. 이 바위를 응회암 (凝灰岩: Tuff)이라 부르는데 화산재로 만들어진 이 암석은 비교적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부식되어 여기 저기 많은 구멍이 난 것이다. 구멍이 많이 뚫린 바위절벽이 구멍이 많은 스위스 치즈 같다는 비유를 하곤 한다. 치즈중에서도 스위스 치즈에다 비유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필자의 추측으로 반텔리어란 이름의 인물이 스위스에서 이민온 사람이었던 것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텔리어는 스위스 출신의 고고학자이면서 푸에블로 인디언의 문화 역사 보존에 공헌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그는 죽은 후에 그의 재를 이 곳에 뿌려달라고 했을 정도로 이 곳 인디언 유적을 사랑했던 학자였다. 그의 공적을 기리기위해 이곳 공원이름에 그의 이름이 부쳐졌다.

큐웨니 유적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절벽을 벽으로 삼아 2층 또는 3층으로 연립주택을 지었던 유적이 나온다. 약 800ft 길이로 집을 지은 이 건축물 유적을 롱하우스(Long House)라 부른다. 절벽 바위에 구멍을 뚫어 석가래 통 나무를 끼워 넣은 흔적이 보이

음악 교육에 관하여 (13페이지에서 계속)

-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음악 연주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 지능 발달에 기여
악기 연주 시 소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좌뇌와 우뇌의 지능발달에 기여하며, 악기 학습은 다른 학습 교육보다 훨씬 더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어 지능 향상의 효과를 준다. 또한 손과 팔 운동을 통한 신체 건강에도 기여하며,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균형 잡힌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0세기 말엽부터 악기 연주는 인간의 뇌 기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베토벤은 “음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하였으며, 그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그의 전 생애를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음악교육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모든 감각과 뇌가 형성되는 이 시기야말로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아이의 평생을 풍요롭게 준비해 주세요. ■

영어 이야기 (2)



이상목

전직 교수

아마추어무선사(K7MOK)

오늘월(五六月)은 푸르름이 솟아나는 생명의 계절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초여름의 햇살에 산천초목이 파랗게 물드는 것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활기로 가득 채워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어머니날, 아버지날 구별하지 않고 “어버이날”이 있지만, 미국은 남녀가 유별한지, Mother’s Day와 Father’s Day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서, 음식점, 백화점, 꽃가게, card 가게가 대목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Mother’s Day(어머니날)는 1907년,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 사는 Anna Jarvis부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후 친구들과 함께, 어머니날 운동(campaign)을 벌여, 1914년 국회에서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금년은 5월12일) 제정했습니다. 필자가 예전에 살던 일리노이주의 Naperville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백일장이 해마다 열리는데, 그중 하나를 일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My mom will be 60 this summer. Looking back, as a mom myself, I now truly appreciate her more than I ever could have imagined. She raised three girls. She was at every school program, recital and sporting event.” (제 어머니는 오는 여름이면 60이 됩니다. 지금은 엄마이기도 한 저 자신이 자라온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 왔던 그 이상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세자매를 키우셨는데, 리싸이틀이나, 운동시합같은 학교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분이었습니다). “Dinner was at 6:30 every night – nothing ever seemed to change that. Dinners were always homemade including salad, meat, potatoes and veggies. Monday was laundry day. Tuesday she ironed everything. Nothing ever sat in the sink or the dishwasher. Friday was cleaning day. Sunday was church and spaghetti.” (저녁시간은 거의 변함없이, 6시 반이면 저녁을 먹었습니다. 음식도 늘 부엌에서 손수 만드셨는데, 주로 썰러드, 고기, 감자, 야채류의 저녁이었습니다. 월요일엔 빨래, 화요일엔 다리미질을 하시고, 부엌에 찌꺼기 남기는 적 없으셨고, 금요일은 청소를 하여, 집안이 항상 깨끗하였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보고, 저녁은 스파게티를 즐겼습니다).……. 중략하고,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My 34 years experience with my mom is incredibly hard to sum up in such a short space. She is many things: an employee, a wife, a baby-sitter, a care-taker, a friend. But the best of all, I’m so proud to say….she is my mom, Beverly Cronin. She provided and continues to provide everything a kid could want… unselfish love.”(34년 엄마와 살아온 여정을 지면이 모자라 다 적을수는 없군요. 어머니는 회사에서는 훌륭한 직장인이요, 집에서는 한 남자의 부인이며, 자상하게 아기도 돌보고, 우리들 건강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친구도 되어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제일은,

우리엄마라는 사실입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빈곳을 메우시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veggie”는 채식주의 또는 채식주의자를 의미하는 구어체로서 vegetable에서 나온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예문(例文)에서 처럼, 복수로 veggies 하면 야채를 뜻합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어머니날과 관계있는 재미있는 통계(미국) 몇 개를 보겠습니다. 쌍둥이(twins)가 태어날 확률은 33 명중 하나, 세쌍둥이 이상(triplets or other multiple births)은 539 명 중에 하나, 화요일에 아기가 제일 많이 태어났고, 8월에 제일많이 태어난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출생의 40%가 첫아기이고, 33%가 둘째 아기입니다. 40에서 44세 사이의 여성 중, 81%가 어머니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병원에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주중의 낮시간에 대부분 아기를 낳습니다. 미국산모의 2%는 집에서 자연분만 하는데, 자연법칙에 의하여 새벽 1시~5시 사이에 주로 낳는다고 합니다. 아기가 그동안 있던 엄마뱃속처럼 처음 나오는 바깥도 깜깜하여야 되기때문이지 싶습니다.

아버지날(Father’s Day)은 1910년 Washington 주의 Spokane 시(스포캔으로 발음) 시장에 의해, Mrs. John B. Dodd 부인의 제창으로, 6월 19일 처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후 Johnson 대통령때 정식으로 6월 셋째 일요일로(금년은 6월16일) 채택되고, 1971년부터 매년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소년의 아버지에 대한 글 소개합니다. “My dad is the best dad ever! He’s a father of three who works, does dishes, takes out the trash, walks the dog, sometimes makes dinner and after all this, he still has time to take us where we want to go.” (우리 아빠는 아빠중의 아빠입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직장에 나가시며, 설거지하시고, 쓰레기 갖다 버리시며, 개와 산책도 하시며, 때때로 저녁도 준비하시는데, 그중에 제일은 아빠는 우리가 가보고 싶은데를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dish”는 접시, 요리, 예쁜 여자들을 뜻하지만, “do dishes”는 설거지(wash dishes)를 말합니다. “He helps us with our homework and hangs out with us! Most importantly, when we mess up, he doesn’t yell at us like some parents. He tries to help us fix our mistakes and learn from them.” (아버지는 우리들 숙제도 도와주시고, 같이 놀아 주십니다. 더욱 좋은것은 우리가 어지러 놓았을 때에도 다른 부모들 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치워주시면서 저희들 잘못을 고쳐주시고, 잘못을 통하여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My dad is also a great role model. He

< 20 페이지로 계속>

새파란 하늘과 멋진 저녁 노을을 즐기며 사는 우리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시편 19 편 1 절 현대인의 성경)

뉴멕시코의 청명한 하늘은 가끔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나의 마음을 뺄 뿐이게 해서 시원하게 해주곤 합니다. 구름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을 보며 “여기가 우리가 찾는 낙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글 세요. 요새 한국 뉴스를 들을 때마다 쉬지 않고 나오는 미세먼지 뉴스, 서울은 미세 먼지가 150 microgram 이다 또는 195 microgram 이므로 외출할 때 마스크를 사용하라는 등 노년들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등등 별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1960년경에 제작해서 세웠던 남산 송신 tower가 지금은 유명한 명물 tower로 둔갑해서 그 모습이 달라졌는데 서울의 미세 먼지가 하도 진해서 남산 타워가 희미하게 보이는 사진을 보여 주는데 좀 놀랐습니다. 1960 년 때에는 아예 미세 먼지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 먼지가 중국 본토에서 제트기류를 타고 온다고 그들에게 말했었답니다. 그들은 “그러니 어쩌라고?” 하며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미세 먼지를 비롯한 대기권 공해나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는 한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온 지구상의 생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합심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원자력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자로 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Multichannel Analyzer가 고장이 났으니까 빨리 와서 당장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내에 안 고치면 원자로가 폭발할지 모른다고 위협했었습니다. 연구소의 모든 전자기기는 전자공학 실에서 고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전자공학연구실 줄병?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게 되어서 큰 곤 역을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transistor가 없었고 모두 vacuum tube를 썼는데 큰 케비넷만 한 Analyzer 안에 수십 개의 진공관이 짝 차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전부 검사하는데 진땀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과학자가 이 미세 먼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인공강우를 시도한다고 들었습니다. 비를 만들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씻어 내자는 것입니다. Idea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과연 실현성이 있을까 문제입니다. 인공강우를 시도하는 연구원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과제는 지구상의 제트 기류는 마치 팬이가 돌듯이 지구 축이 23.5도+ -1도로 삐딱하게 흔들리며 돌기 때문에 그 Pass가 정확하게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이 예측이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인공강우를 시도해야 할 줄 압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 중부 지방에서 심한 한파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인공강우 Project를 채택해서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비가 오기는 했는데 필요한 지역에 내리지 않고 엉뚱하게 비가 탄 곳에 내려 큰 혼란을 빚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있고 난 뒤에는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인공강우 연구는 완전히 끝을 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언급했던 것을 다시 말한다면 대기권의 산소 함량이 21%, 질소가 78%인데 이 비율이 유지되지 않고 산소 함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예로서 산소 함량이 12% 이하로 떨어진다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연고로 산소량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궁금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보세요. 산소를 누가 소모합니까? 또는 산소를 누가 만듭니까? 산소는 사람이 소모하고 식물들이 산소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식물들을 함부로 푸대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현재 아마존강변의 밀림을 쓸어버리고 공업단지를 만들고 동남아 지역도 공업단지 개발사업이 한창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늘에 쉬지 않고 날아다니는 비행기들,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들, 화력 발전소들, 그 밖에도 산소를 태우는 모든 기기, 인구 팽창들이 모두가 산소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산소량이 21%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 나라에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의 어떤 대학에서 입학 면접시험을 치르는 학생에게 짓구진 교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청명한 하늘은 새파란 색을 나타내고 저녁노을은 붉은색을 나타냅니까?” 이 학생은 당황해서 답을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그 이유를 따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왜 구름은 흰색이지요 라던가 무지개 색깔 중 빨간색은 무지개 위쪽에 있나요. 아 댕쪽에 있나요. 왜 STREET SIGN은



초록색 바탕에 흰 글자로 쓰여 있을까요? 보기 좋게 만들려고요? 보기도 좋긴 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의 저녁노을 작품은 김수영 권사가 기막힌 저녁노을을 여러 차례 감상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 권사는 시편 19편 1절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 이 만든 청명한 하늘을 보며 동네를 산책하며 감탄했고 하나님이 보여 주는 황홀한 저녁노을을 잊지 못해 작품화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공공로게도 저의 부엌 서쪽 벽에 걸려 있어서 매일 보며 즐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육(生育)과 번성(繁盛)

이명길

알버커키 한인장로교회
목사



며칠 전 한국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 유튜브에서 중국 출산율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창세기 1장 창조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 인구폭발 문제가 3, 40년 전 공산주의자들의 전매특허였는데 이제는 인구 급감 문제가 학자들 입에서 자주 거론되니 참 아이러니하다. 이념적 주정이 성경보다 높아 보였지만 천재 이론도 바보짓임이 증명된 것이다.

현재 중국 인구는 정부 통계로 14억을 조금 넘는다 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호적 없는 자가 정부 통계로 1300만이라지만 UN은 3000만이 넘는다고 추정한다. 하나 이상 출산은 불법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무호적(無戶籍) 아이들이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배격하고 엥겔스 인구론으로 하나님을 역행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둘째 이상은 벌금을 내야 호적에 올리는데 그럴만한 돈이 없어 무호적으로 된 소수 민족의 숫자다. 이들은 학교도 갈 수 없고 직장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힘들고 공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체 산속에서 가난을 대물림 받고 사는 비극의 주인공들이다. 공산주의는 같이 살자는 이념인데 권력층만 잘살고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이들은 버려둔 체 선진국이라 자처한다.

하나만 낳자는 법률은 두 가지 사회 문제를 제기했다. 하나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아들만 낳아 남자 수가 여자보다 많아 장가 못 가는 병폐를 양산한 것이다. 곳곳에 총각 싱글들만 모여 사는 곳이 생겼다. 특히 북한의 탈북 여성 인신매매가 성한 것도 이런 잘못된 이념의 결과물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년층 빈곤이다. 노인 인구는 팽창하는데 이를 부양해야 하는 젊은 층수가 매년 줄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이다. 젊은이들이 세금 많이 내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데 하나만 낳도록 법을 만들었으니 국가가 무슨 돈으로 노인을 먹여 살리겠는가? 결혼한 한 부부는 양가 부모가 4명, 그리고 그 4명의 부모 곧 조부모 8명 모두 12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자식들이 또한 어찌 감당하랴.

그래서 이춘근 박사는 중국에 미래가 없다고 한다. 곧 망할 것이라는 말이다. 현재 인구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적어도 2.2명의 출산율을 지켜야 하는데 예전보다 살기 좋아진 중국도 자녀 하나 문화로 바뀌어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1.8명을 낳는다. 이런 추세이면 1929년 역사적으로 인구 정점이 이르고 이후 점점 줄어들어 2040년이면 8억8000만이 된다고 한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매년 젊은 노동 인구가 1%씩 줄어드니 중국 공산당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사실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다. 2028년 인구

5,194만으로 3년 앞당겨 정점을 찍은 뒤 인구감소가 절벽 같아질 것이라 해 생긴 단어다. 1960년대 신생아가 108만이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63만, 2017년 35만, 올해는 31만으로 줄을 것이라 한다. 이런 추세라면 지금 36만 명의 신생아 출산이 30년대는 10만으로 40년대는 5만으로 줄어드는 반면 사망자 수는 2017년 29만, 2019년 31만, 2067년에는 74만 정도가 되어 현재 세계인구 28위인 한국이 2100년은 72위로 전락하고 금세기 다 가기 전 출산율이 0으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조영태 교수는 경고했다. 바로 올해가 이런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해라고 한다.

출산율 감소로 학교와 대학들이 문을 닫고 많은 선생님이 직업을 잃게 되며 대입 제도가 사라지고 군대 갈 인구가 모자라 국방력이 감소하며 노령 인구를 부양할 세금 부담이 너무 커 노인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지만 미래에 내 자녀들이 겪어야 할 무거운 짐을 근시안적인 부모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이 감당할 무거운 짐을 물려주는 생각 없는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의 장래가 참 어둡다는 것이다. 교육비 타령만 하지 말고 젊은 가임 부모들의 출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1995년부터 중국에 드나들며 알았던 연변 중국 교회의 조선족 목사가 있었다. 뉴욕에 초청했는데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다. 둘째 아이와 탈북자 양자 문제로 당국의 체포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다. 유달리 기독교를 싫어하던 당국자들이 목사를 감옥에 보낼 충분한 사유를 찾은 것이다. 결국 망명 신청을 해 현재 워싱턴 DC 중국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러던 중국이 암 수 한 쌍에 3마리 새끼들 젖을 먹이는 우표를 금년 황금 돼지해(己亥年)에 만들었다. 중국도 이제는 3명의 자녀 두기를 장려하는 것 같다. 인권은 젓혀두고 필요하면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 공산 독재 정권은 이리다 아이 셋 이하는 벌금 매기고 감옥 보내는 시대를 열지 모르겠다. 아니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대한민국 좌파 정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 저하 방지법”을 만들어 3명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 벌금 물리고 먼저 감옥 보낼지 누가 알겠는가?

한 때 서울 공대생이 유학 많이 오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가 위치한 State College에서 목회한 일이 있다. 주로 이대 숙대

출신 부인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남편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한다. 놀라운 것은 학위 끝나 아이 갖고 싶을 때 피임약 부작용 때문에 불임으로 무자녀가 된 부부가 많은 점이다.

서울공대 이대 출신 부부가 있었다. 물론 오래 피임 중이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 그러다 임신이 되었다. 첫아기였다. 남편이 졸업 후 미 서부 어느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심장병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부인만 아이 하나를 데리고 한국에 갔는데 내가 한국 방문 중 찾아 만났다. 만난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 기도해주었다. 엄마는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이 아이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내게 주신 선물”이라 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임신에 도움 되는 것도 그때 알았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개개인을 계획하시고 부모를 통해 잉태케 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 구원하셨다고 가르친다. 예수님이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이미 이런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는 고백이다. 그런데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계획대로 애도 낳겠다는 생각이 오늘 젊은 신자들의 지배적 사고(思考)다. 엄연한 자가당착이다. 고백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기독교인들의 이중적 삶의 현주소다.

지금 서구 기독교 국가들 출산율이 머물름 국가나 경제적 빈국보다 지극히 낮은 것은 심각한 불순종의 산 증거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머리로는 시인하지만, 구체적 내 인생 계획은 내가 따로 세워 살겠다는 사람에게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 통할 리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주권 신앙이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내 주권 종교”로 전락하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 무능력해진다. 무신론자들이 창궐하고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독재자가 되어 자유를 빼앗고 사회는 이념의 종이 되어 계급투쟁의 아수라장이 된다. 서로 죽이고 속이다 함께 망한다.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당연한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 하나님도 내 종으로 나를 돕고 지켜야 하고 예수는 내 계획을 성취시키는 마음 좋은 이웃집 아저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리의 삶이 종교로 전락 신들을 창조하는 종교 팽창에 기독교도 공헌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현상이 무니만 신자들의 일상적 삶이다. 이런 풍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소수의 복음적 교회들이 어찌 힘들지 않으랴?

그래도 이미 70년대부터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인구 급감이 가져올 사회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믿음의 선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지를 인식, 낙태 금지 운동과 자녀 출산 장려 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보수적인 미국 사람들은 비교적 많은 아이를 출산 말씀을 순종했다. 미국의 출산율이 서구나 동양 선진국들처럼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진실한 기독교 신자들의 순종의 삶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엘리트부터 정직하고 솔직하게 구체적 순종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을까?

혹자는 목사님은 남자니까 아이 낳는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해 그렇게 말씀한다고 불평할지 모른다. 더구나 지금 경쟁 사회에서 한 자녀도 교육하기에 힘에 부치는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쓰냐고 힐문할지 모른다. 사실 성경은 출산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출산의 고통 때문에 여성을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여성들을 더 축복하신 것이다. 남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해산의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

나는 딸 3명에 끝으로 아들 하나 더 두었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갔다. 한때는 대학생이 3명이나 되어 들었던 저축성 생명보험을 취소하고 돈을 되돌려 받아 학비로 사용했다. 저들이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해서 용돈을 벌게 했다. 대학에서 장학금이 많이 나왔지만 돈을 젊은 아이 허리가 휘도록 얻었다. 돈이 없어 과외 시킨 일도 없고 특기 과외 시키지 못했다. 그래도 자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미국 중, 상류 사회에 과감히 진출하여 자신들의 삶을 영유하는 기독교 자녀로 자랐다. 경제가 어려워도 직장을 잃어 부모의 근심되는 일 없이 꾸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 고맙다. 4명의 자녀들이 자라며 서로 친구가 되어 사회성이 크게 좋아지더니 커서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살고 있다. 싸우기도 하고 돕기도 하며 서로를 알고 배려하는 것을 저들 스스로 터득했다. 내 경험은 말한다. 미국에 살면서 아이들 교육비 걱정하며 적게 낳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핑계일 수 있다. 목사 간호사 부부의 수입으로 아이들 넷을 석, 박사 되기까지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 살기에 가능했다.

왜 미국이 중국보다 미래가 밝은가? 이준근 교수는 다른 분의 책을 인용하여 미국은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나 한국 중국 일본에 비해 출산율이 비교적 높다. 기독교인들이 아이 많이 낳기 때문이다. 수년 후에는 기독교 출산 비율이 전체 출산 비율의 90%가 넘을 것이라 예상까지 한다. 내가 아는 미국인 친구 목사들은 3, 4 명은 물론 7, 8명까지 낳은 분들이 많다. 왜 그런지 한국 목사님들은 적게 낳는다. 이준근 박사의 강의가 과연 그대로 실현될지 의문이지만 보수적 복음주의 신자들이 장차 인구 비례로 주축이 되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 자유주의자들이나 기독교 무니만 신자들은 하나 낳지만, 진실한 신자들은 많이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낳아 잘 가르쳐 좋은 신자를 만들면 참 신자 증가로 이 땅에 복된 사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을까?

미국인 선교사 후예로 한국에서 출생, 의사가 된 미국인 인요한(John Linton)은 자기 엄마는 14명의 자녀를 두기를 원했는데 7명밖에 두지 못했다고 하며 어머니가 병약해 하마터면 자기는 태어나지 못했을 뻔했다 한다. 엄마의 자녀 욕심 때문에 태어났다고 말한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순천 인씨(印氏) 시조라면서 뻗속까지 한국인이라고 자칭하는

영어 이야기 2

<16 페이지에서 계속>

doesn't just tell us not to do something; he follows his own rules, too! My dad always helps me with my problems and encourages me to accomplish my goals. I love my dad so much and think that he is the best dad ever! These are some of the reasons why.” (우리 아빠는 모범이 되는 훌륭한 아빠입니다. 우리들에게 하지말라고 하시기 보다는 아빠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이십니다. 문제가 있을때 도와주시고, 하는일 끝마칠수 있도록 용기를 넣어주십니다. 최고의 아빠, 이러한 모든것들이 제가 아빠를 사랑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위문장의 “my best dad ever”처럼, “ever”는 강조할때 흔히 사용됩니다. “Have you seen it?”은 단순히 “너 그것 봤니?”이지만, “Have you ever seen it?”은 “너 그거 본적있니?”의 뜻이 됩니다. 아이한테 “너 또 그럴래?” 하고 물었을때, “Never!”보다 “Never ever!”는 “다음엔 절대로 안그럴게요.”처럼 뜻이 강조됩니다. ever를 두번 사용하면 더욱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Never ever, ever!”). 물론 “ever”는 잘 아시다시피, “항상, 언제나”의 뜻으로, evergreen은 잎이 일년내내 떨어지지 않는 수목으로, 소나무처럼 주로 푸른색(초록색)이므로 사철(푸른)나무, Florida의 everglade는 항상 물에 잠겨있는 늪과 같은 wetland를 일컫고, The Everlasting은 영원히(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5월은 또한 어린이날(Children's Day)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5월5일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미국은 무슨날 무슨날 하면서 즐기는 날, 예를 들면 Secretary Day에는 비서를 두고있는 윗사람들이 비서들에게 선물도 주고 점심을 사기도 하는 National Day가 많은데, 8월13일은 왼손잡이 날입니다(National Left-Hander Day). 한국에서 어린이절을 보내신분이라면, 강소천요/나운영곡의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며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 오월은 푸르고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 Bye Kids. ■

새파란 하늘과...

<17 페이지에서 계속>

찬송을 혼자 흥얼거리며 부르기도 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제가 몇 가지만 더 꼬집습니다. 몇 달 전에 한국 기상청에서 어느 지역에 눈이 1 센지 미트쯤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는데 실제로 내린 눈은 8 센지 미터가 넘었대요. 그랬더니 기상청의 예보가 틀렸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쳤었다는 말입니다. 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 끝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야단을 치다니요.

다음은 좀 심각한 것인데요. Radon (레이돈, 한국에서는

라돈이라고 부릅니다) 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새로 만든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는데 발암 물질이라고 해서 크게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방사성 탐지기를 사용하면 곧장 그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 침대를 오래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또는 어떤 근거로 이런 물질을 매트리스 재료로 써야만 했을까? 몹시 궁금합니다. 이물질을 사용한 회사는 우리가 모 그 큰 이유 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EPA에서는 이 Radon level 이 4 pico curies / Liter로 정하고 이수치, 보다 높으면 조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돈 gas를 많이 들어 마시는 자는 폐암이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큰 관심거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된 상황인 듯합니다.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포항 근방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타격을 초래했는데 그 원인이 지열발전을 한다고 지하로 찬물을 쏟아붓고 뜨거워진 물을 뽑아서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발한 것을 생각해 낸 자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지금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

생육과 번성

(19페이지에서 계속)

진정한 기독교인 의사의 말을 우리는 경청해야 할 것이다. 신자는 실천 있는 삶이어야 진실한 신자다.

우리가 못 살았던 때에 재미 교포 대부분은 이민 왔다. 1971년 이민 온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를 미국에 보냈음을 깨닫게 된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돈 벌어 잘 살라고? 자식들 잘 가르쳐 출세시키라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어쩐지 참된 이유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이민 목적은 무엇일까?

지금 서구 기독교는 급히 몰락하고 있다. 미국도 자유 진보주의가 주류다. 날이 갈수록 반기독교 정책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현실이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 신성 부인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엄연히 성경이 금하는 동성연애가 교단 총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일은 오늘 먹고 살기 힘든 내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할 일 없이 떠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일이지 나는 상관없다”고만 치부할 것인가?

이런 때 누구나 편하고 안이한 삶을 누리며 살고 싶다. 그러나 미국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한국을 가난과 전쟁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신앙 열정과 헌신의 본을 미국인에게 보여 빛을 갠다는 뜻일 것이다. 아직도 신앙의 열정만은 한국을 넘어서는 곳은 지상에 없다. 늦게 받은 자가 먼저 된 상태가 한국 교회다. 물론 잘못도 많고 비판 받아야 할 일도 많다. 그러나 신앙의 열정만은 여전히 뜨겁고 불타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보스톤에 친구 목사가 있다. 그가 미국 교회를 빌려 예배드리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다. 그런데 복음적인 미국 교회 목사님이 한국인의 새벽기도를 본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했으나 차츰 열정적으로 되었고 결국 교인이 급증하여 땅을 사 교회를 지어 이사했다. 구 교회 건물을 한인 교회에 싼값으로 주어 교회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미국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 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한인들은 한인 교회에 모여 우리의 열정적 정서와 헌신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하여 이 땅의 지도자로 진출시켜야 한다. 세속화 물결이 휩쓰는 서구 문화를 돌이킬 수 있는 일에 살아있는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재미 한국 동포들은 최소한 하나씩만 더 낳자고 제안하고 싶다. 하나님의 명령을 좀 심각하게 순종하자고 권하고 싶다. 가능하면 4명씩 낳자고 하고 싶다. 왜냐면 번성을 영어로 Multiply라 한다. 이 단어는 한국말로 곱하기로도 번역한다. 하나님 명령은 곱하기이다. 자녀 둘이면 번성이 아니다. 엄마 아빠 두 사람의 곱하기는 4이다. 최소한 4명은 나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반기독교적 자유주의자들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장차 크리스천 시민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한인 인구 비율도 높아질 것이다. 언제인가 소수민족이 아니라 다수 민족이 될 수도 있다. 생각 있고 가치관 높은 우리 후예들이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미국의 주인 역할을 할 날도 올 것이다. 그것이 나의 꿈이다. 너무 나이브한가?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모임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알버커키 Albuquerque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식당 Korean Restaurant	식품점 Korean Grocery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sian Pear 8101 San Pedro Dr. NE, Ste D ABQ (505)766-9405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자동차정비 Auto Repair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교회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ABQ(505-883-3618)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ABQ (505-345-0960)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주택용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사진관 Photo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 3420)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중재서비스 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 505-797-2211 커튼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틴 505-286-3535 www.dahnyoga.com	리커스토어 Liquors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Salon 47(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47 (505-296-2335)	컴퓨터 서비스 SH Consulting(이성희) 505-933-9004 Remote/Onsite Computer Support.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츨렐: Los Alamos (505-
662-9681)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식당
Chinese Restaurant**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베이커리 Bakery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19년 5/6월호
발행일 : 2019.5.3.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야의 소리에 비즈니스 광고내시길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크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